

1. 그림과 같은 생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군장이 제사를 주관하였다.
- ② 미송리식 토기를 사용하였다.
- ③ 고인돌과 돌무지무덤을 만들었다.
- ④ 뼈바늘과 가락바퀴를 사용하였다.
- ⑤ 청동으로 의식용 도구를 제작하였다.

정답: ④

* 신석기 시대상

• 움집, 빗살무늬토기, 농경, 가축 사육, 갈돌과 갈판 등을 통해서 신석기 시대임을 알 수 있다.

•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다. 황해도 봉산 지탑리와 평양 남경의 유적에서는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신석기 시대에 잡곡류를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쓴 주요 농기구로는 돌괭이, 돌삽, 돌보습, 돌낫 등이 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지는 않지만,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나무로 만든 농구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농경은 집 근처의 조그만 텃밭을 이용하거나 강가의 퇴적지를 소규모로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농경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냥과 고기잡이가 경제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식량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주로 활이나 창으로 사슴류와 멧돼지 등을 사냥하였고, 여러 가지 크기의 그물과 작살, 돌이나 뼈로 만든 낚시 등으로 고기잡이를 하였다. 또, 굴, 홍합 등 많은 조개류를 먹었는데, 때로는 깊은 곳에 사는 조개류를 잡아서 장식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농경 도구나 토기(대표: 빗살무늬토기)의 제작 이외에도 원시적인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졌다. 가락바퀴나 뼈바늘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도구가 발달하고 농경이 시작되자 주거 생활도 개선되어 갔다. 집터는 대개 움집 자리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움집의 중앙에는 불씨를 보관하거나 취사와 난방을 위한 화덕이 위치하였다. 햇빛을 많이 받는 남쪽으로 출입문을 내었으며, 화덕이나 출입문 옆에는 저장 구덩을 만들어 식량이나 도구를 저장하였다. 집터의 규모는 4, 5명 정도의 한 가족이 살기에 알맞은 크기였다.

①, ②, ③, ⑤는 청동기 이후의 생활 모습이다.

2. 밑줄 그은 '왕' 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불법을 처음으로 행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왕이 불교를 일으키려 하였으나 여러 신하들이 믿지 않고 불평을 많이 하였으므로 근심하였다. 이차돈이 아뢰기를, “바라건대 신의 목을 베어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진정시키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차돈의 목을 베자 잘린 곳에서 피가 솟구쳤는데, 그 색이 우유빛처럼 희었다. 여러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 다시는 불교를 혈돋지 않았다.

- ①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 ②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 ③ 통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율령을 반포하였다.
- ④ 대군장을 의미하는 마립간 칭호를 사용하였다.
- ⑤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을 설치하였다.

정답: ③

* 6세기 초 신라 법흥왕의 업적(514~540)

• 제시된 자료는 이차돈의 순교를 통한 불교 공인에 관한 이야기이다(527).

• 법흥왕은 상대등, 병부의 설치(531), 율령의 반포(520), 공복의 제정 등을 통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또, 골품 제도를 정비하고 불교를 공인하여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들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 함으로써 자주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로써 신라는 중앙 집권 국가 체제를 완비하였다.

①, ② 신라는 6세기 진흥왕(540~576)은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불교 교단을 정비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하였다.

이를 토대로 고구려의 지배 아래에 있던 한강 유역을 빼앗고 함경도 지역으로까지 진출하였으며, 남쪽으로는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였다.

또한 거칠부를 시켜 ‘국사’를 편찬하였으나 전해지지 않고 있다.

④ 4세기 내물왕(356~402) 때, 신라는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낙동강 동쪽의 진한 지역을 거의 차지하고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이 확립되었다. 또, 왕의 칭호도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⑤ 문무왕(661~681) 때에 외사정을 설치하여 지방관을 감찰하였다(673).

3. 밑줄 그은 ㉠의 위치를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1점]



정답: ⑤

* 변한의 역사

- (가) 부여
- (나) 고구려
- (다) 옥저
- (라) 동예
- (마) 변한

삼한 사회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농경 사회였다.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경이 발달하였고, 벼농사를 지었다. 특히,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다. 철은 교역에서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하였다.

4. 다음 상황이 발생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부흥군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던 부여풍은 고구려와 왜국에 군사를 요청하여 당나라 군대를 막으려 하였다. 문무왕과 당의 장수 유인원은 육군을 거느리고 나아가고, 유인궤는 수군을 거느리고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세하여 주류성으로 갔다. 백강 어귀에서 왜국 군사를 만나 네 번 싸워서 모두 이기고, 그들의 배 4백 척을 불살랐다. 이때 부여풍은 탈출하여 도주하였다. 왕자 부여충승·충지 등이 부여풍의 군사를 거느리고 왜국 군사들과 함께 항복하였다.

612	642	660	668	676	698
(가)	(나)	(다)	(라)	(마)	
살수 대첩	대야성 전투	사비성 함락	평양성 함락	기벌포 전투	발해 건국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③

* 백제 부흥운동과 백강 전투(663)

백제 멸망(660) 이후 각 지방의 저항 세력은 백제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복신과 흑치상지, 도침 등은 왕자 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주류성과 임존성을 거점으로 군사를 일으켰다. 이들은 200여 성을 회복하고 사비성과 웅진성의 당군을 공격하면서 4년간 저항하였으나,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부흥 운동은 좌절되었다. 이 때, 왜의 수군이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백강 입구까지 왔으나 패하여 쫓겨갔다(663).

5.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선종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
- ② 탑신에 팔부 중상이 새겨져 있다.
- ③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내장되어 있었다.
- ④ 현존하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
- ⑤ 목탑이 석탑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정답: ③

*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

신라 중대인 742(경덕왕 원년)에 지어진 탑으로서 기단이나 탑신에 아무런 조각이 없어 간소하고 날씬한 석가여래(현재불)을 구현하였다. 이는 통일 신라기에 유행한 이중 기단 위에 3층으로 쌓는 석탑의 전형을 보여준다.

또한 이 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8세기 초에 만들어진 두루마리 불경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목판 인쇄물이다.

① 신라 말기에 선종이 널리 퍼지면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과 같은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과 탑비가 유행하였다.

②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은 2단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려 놓은 전형적인 통일 신라 석탑이나, 아래층 기단에는 천의 자락을 흘날리는 비천상(飛天像)이 사방으로 각각 둘씩 모두 여덟이 양각되었고, 위층 기단에는 구름 위에 앉아 무기를 들고 있는 팔부신중(八部神衆)이 사방에 둘씩 양각되었고, 1층 탑신에는 사방불(四方佛) 각 면마다 양각되어있는 특이한 형식으로 이름이 나 있다

④ 신라의 분황사탑은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탑으로, 지금은 3 층까지만 남아 있다.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⑤ 백제의 미륵사지 5층 석탑을 계승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 석탑이 목탑에서 시작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석탑이자 석탑의 시조(始祖)라 할 수 있다.

6. 밑줄 그은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신문왕 7년(687) 5월에 ㉠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다.
- 신문왕 9년(689) 1월에 내외관의 ㉡녹읍을 혁파하고 매년 조를 내리되 차등이 있게 하여 이로써 영원한 법식을 삼았다.

- 「삼국사기」 -

< 보 기 >

- ㄱ. ㉠ - 5품 이상의 관료가 지급 대상이었다.
- ㄴ. ㉠ - 왕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되었다.
- ㄷ. ㉡ - 군공을 포상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
- ㄹ. ㉡ - 조세 수취와 노동력 징발의 권리가 주어졌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관료전과 녹읍

통일 신라는 통일 직후 전제왕권이 형성되자 국가의 수입을 늘리고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토지 제도를 정비하였다.

신문왕 때에는 문무관료들에게 관료전(수조권만 지급)을 지급하고(687). 이전에 귀족에게 주었던 녹읍(국가에서 관료 귀족에게 지급한 일정 지역의 토지로서, 조세를 수취할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을 없앴다(689).

㉠ 고려 시대의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관료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 식읍(食邑)은 국가에서 왕족, 공신 등에게 준 토지와 가호로서, 조세를 수취하고 노동력을 징발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7. 지도에 표시된 천도를 단행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신라도를 통해 신라와 교류하였다.
- ② 고려국왕을 표방하고 일본과 교류하였다.
- ③ 대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장문휴로 하여금 산둥 반도를 공격하게 하였다.
- ⑤ 안·사의 난을 틈타 요하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정답: ④

* 발해 문왕(재위: 737~793)의 업적

• 중경 현덕부(길림성 화룡)→상경 용천부(흑룡강성 영안)→동경 용원부(길림성 훈춘) 등으로 자주 천도를 한 발해의 왕은 3대 문왕(대흥무)이고, 이는 발해의 국력 신장과 체제 정비를 반영한 것이다.

• 대조영의 뒤를 이은 무왕(719~737) 때에는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발해의 세력 확대에 따라 신라는 북방 경계를 강화하였고, 흑수부 말갈도 당과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발해는 먼저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는 한편(732),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였다. 또, 돌궐, 일본 등과 연결하면서 당과 신라를 견제하여 동북 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어 문왕 때에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 체제를 정비하고, 신라와도 상설 교통로(신라도)를 개설하여 대립 관계를 해소하려 하였다.

또한 당시 당에서 안·사의 난(755~762)이 일어나 국력이 약화된 틈을 타 요하까지 영토를 넓히고, 남으로는 신라와, 북으로는 흑수 말갈에까지 이르렀다.

이 무렵, 발해는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인안(무왕), 대흥,보력(문왕)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② 문왕이 759년 일본에 보낸 국서에 스스로 고려 국왕 대흥무라 소개하여 고구려 계승 의식을 보여주었다.

8. 지도에 표시된 인물들이 활동한 시기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왕권이 전제화되면서 상대등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 ②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는 운동이 일어났다.
- ③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들이 과거 제도를 통해 등용되었다.
- ④ 부처의 힘을 빌려 외침을 막고자 팔만대장경이 조판되었다.
- ⑤ 6두품 세력이 골품제를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하였다.

정답: ⑤

* 호족들이 난무한 신라 말기의 모습

8세기 후반 이후(신라 하대), 진골 귀족들은 경제 기반을 확대하여 사병을 거느리고 권력 싸움을 벌였다. 중앙 귀족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연합적인 정치가 운영되었다. 지방 세력들도 왕위 쟁탈전에 가담하여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자연 재해가 잇따르고, 왕실과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국가 재정이 바닥나면서 농민에 대한 강압적인 수취가 뒤따랐다. 살기가 어려워진 농민은 토지를 잃고 노비가 되거나 초적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중앙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높아지고,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지방에서는 호족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였다. 호족들은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자기 근거지에 성을 쌓고 군대를 보유하여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칭하면서 그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한편, 당에 유학하였다가 돌아온 6두품 출신의 일부 유학생과 선종 승려 등은 신라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진골 귀족에 의하여 자신들의 뜻을 펼 수 없게 되자, 은거하거나 지방의 호족 세력과 연계하여 사회 개혁을 추구하였다.

① 신라 중대(7세기 후반~ 8세기 중반)에는 왕권이 전제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진골 귀족 세력과 상대등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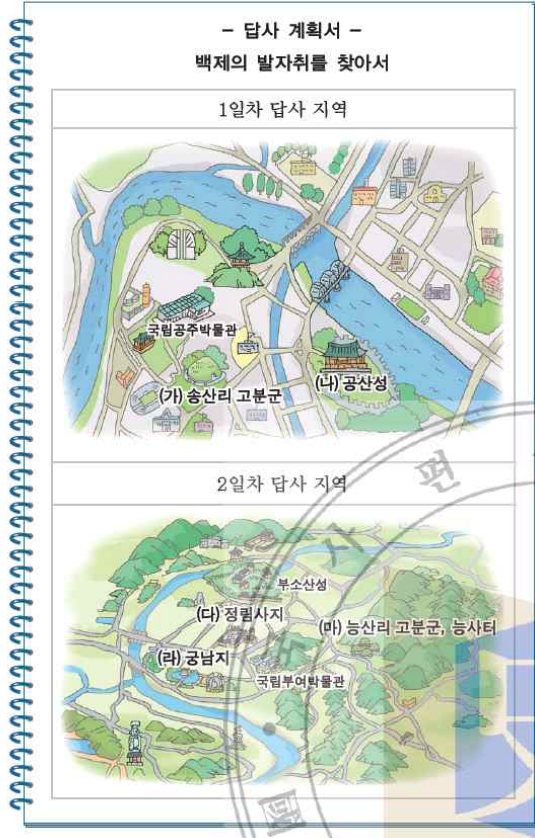
② 12세기 말 고려 무신 정권기에 지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③ 14세기 말 공민왕(1351~1374)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진 사대부의 정계 진출이 확대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지방의 향리 자제들로, 무신 집권기 이래 과거를 통하여 중앙 관리로 진출하였다

④ 13세기 전반 고려 최우 무신 정권 때에 부처의 힘을 빌려 몽고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팔만대장경을 간행하였다(1236~1251).

9.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가) - 돌무지덧널무덤에서 금관이 출토되었다.
- ② (나) - 웅진 시기의 궁궐터가 남아 있다.
- ③ (다) - 백제의 대표적인 5층 석탑이 있다.
- ④ (라) - 백제의 조경 수준을 보여 주는 인공 연못이다.
- ⑤ (마) - 국보로 지정된 금동 대향로가 발견되었다.

웅진 시기(475~538)의 고분은 굴식 돌방무덤 또는 널방을 벽돌로 쌓은 벽돌무덤으로 바뀌었다. 벽돌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무령왕릉이 유명하다. 사비 시기(538~660)에는 규모는 작지만 세련된 굴식 돌방무덤을 만들었다.

(가) **송산리 고분군**: 벽돌식 무덤인 무령왕릉, 사신도 벽화가 있는 6호분 등 총 7기의 무덤이 모여있다.

(나) **공산성**: 공주(웅진)를 방어하기 위해 축성된 산성(山城)으로 진남루 앞의 넓은 터는 백제의 궁터로 추정된다.

(다) **정림사지**: 금당과 강당이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배치되고 회랑을 두른 이른바 장방형의 '남북 1탑식 가람'의 전형적인 백제 가람 배치의 절로서, 절 내에 전형적인 백제 석탑인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유명하다

(라) **궁남지**: 백제의 별궁 연못으로서, 궁남지의 조경 기술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 조경의 원류가 되었다.

(마) **능산리 고분군, 능사터**: 국보 287호 백제 금동 대향로는 부여 능산리 고분군 사이 절터의 한 구덩이에서 450여 점의 유물과 함께 발견되었다. 도교적 이상향을 보여준다

- 능산리 1호분에서 사신도 벽화가 발견되었고, 2호분은 성왕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 능산리 사지에서는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이 발견되었다

정답: ①

* 백제의 웅진(공주), 사비(부여)의 문화유산

① 신라는 초기에 거대한 돌무지덧널무덤을 많이 만들었는데 높이 44cm의 커다란 출(出)자형 금관이 출토된 금관총이 유명하다.

1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가)은(는)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으로 구성되었다. 소속 관원은 비록 직위가 낮았지만 정치 운영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직무가 중요했던 만큼 가문과 능력 등을 심사한 뒤 엄격하게 선발되었다.

- ① 관리의 비리를 규찰하고 탄핵하였다.
- ② 왕의 과실을 비판하여 시정을 건의하였다.
- ③ 왕의 관리 임명에 대해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 ④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맡아 보았다.
- ⑤ 왕의 잘못된 명령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냈다.

정답: ④

* 고려의 대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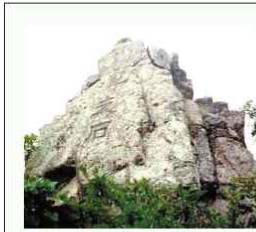
고려의 통치 체제는 성종 때에 마련한 2성 6 부제를 토대로 하였다. 고려는 당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고려의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하였다. 그리하여 최고 관서로서 중서문하성을 두었고, 그 장관인 문하시중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그리고 상서성은 실제 정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6부를 두고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였다. 중추원은 군사 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고, 삼사는 송과는 달리, 단순히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만 맡았다.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 주는 관청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 회의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곳이다. 이러한 회의 기구의 존재는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을 잘 나타내 준다.

한편, 재신과 추밀은 6 부를 비롯한 주요 관부의 최고직을 겸하여 중앙의 정치 운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사대는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았다. 어사대의 관원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대간은 비록 직위는 낮았지만,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과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봉박,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에 동의하는 서경권을 통하여, 왕이나 고위 관리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하여 정치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

11. 밑줄 그은 '왕'이 재위했던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망부석(치솔령)

새로 왕위에 오른 신라의 왕은 고구려와 왜에 인질로 가 있는 아우를 귀환시키고자 하였다. 왕의 명을 받은 박제상은 418년 고구려의 왕을 설득하여 복호를 귀환시켰다. 그리고 그해 왜에 붙잡혀 있던 미사흔을 탈출시켰지만, 제상은 함께 도주하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 박제상의 부인은 바다가 보이는 치솔령에 올라가 울다가 굳어져 망부석이 되었다고 한다.

- ① 교육 기관으로 국학을 설치하였다.
- ② 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넓혔다.
- ③ 백제를 통해 중국 남조와 수교하였다.
- ④ 왕호를 변경하고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 ⑤ 백제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남진에 대항하였다.

정답: ⑤

* 신라 눌지왕(재위: 417~458)의 업적

신라는 내물왕 때의 고구려 광개토왕의 군사 원조(400) 이후 고구려로부터 직·간접으로 많은 간섭을 받고 있었는데, 그 결과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영토에 주둔하고 심지어는 왕위계승까지도 고구려의 간섭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여기에 고구려가 장수왕의 평양 천도(427) 이후 적극적으로 남진정책을 추구하게 되자 신라가 받는 압력도 결코 적은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눌지왕은 비록 고구려의 힘을 빌려 자신을 해치려는 실성왕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으나, 즉위 후 고구려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먼저 전왕 대에 고구려와 왜에 인질로 파견된 동생 복호와 미사흔을 귀환시켰는데 이 때에 활약한 인물이 유명한 박제상이다. 그리하여 433년에 백제(비유왕)가 먼저 화친을 요청해 오자 이에 응하여 나제 동맹이 결성되었다.

① 신문왕(681~692)은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을 위하여 유학 사상을 강조하고,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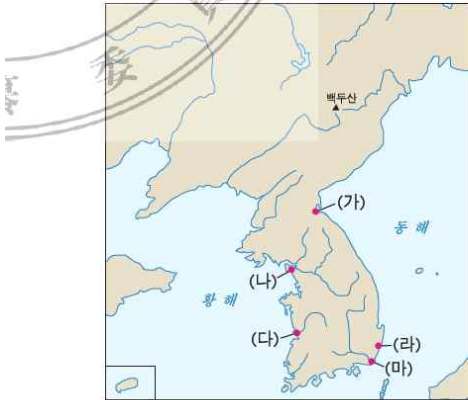
② 진흥왕(540~576) 때에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였다(562)

③ 법흥왕(514~540) 때에 백제의 안내를 받아 기존의 북조가 아닌 남조인 양(梁)에 사신을 파견하였다(521). 그리고 이 때 신라에 사신으로 온 양나라의 승려 원표가 불교를 신라 왕실에 전해 준 것이 불교 수용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④ 지증왕(500~514) 때에 이르러서는 정치 제도가 더욱 정비되어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고(503), 수도와 지방의 행정 구역을 정리하였고(주군제, 소경 설치), 대외적으로는 우산국(울릉도)을 복속시켰다(512).

12. (가)~(마) 무역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가) - 조선 초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여진과 교역하였다.
- ② (나) - 조선 말에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장이 설치되었다.
- ③ (다) - 일제 강점기에 쌀 수탈의 전초 기지였다.
- ④ (라) - 통일 신라 시기에 이슬람 상인이 드나들었다.
- ⑤ (마) - 조선 후기에 일본과 개시 무역이 이루어졌다.

정답: ①

* 원산, 인천, 군산, 울산, 부산 항의 역사

(가) **원산**: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1880년 개항한 인천은 이후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1883년에는 원산에 사립 교육 기관인 원산 학사가 설립되어 최초로 근대 교육을 하였고, 1905~1914년에는 일제에 의해 경원선이 설치되었다. 또한 일제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노동 쟁의인 원산 노동자 총파업(1929)이 유명하다.

(나) **인천**: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1883년 개항한 인천도 이후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개항 후에는 거류지약서가 조인되어 1888년까지는 각국의 거류지가 마련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거류지였다.

(다) **군산**: 1899년 개항한 군산은 우리나라의 최대 곡창인 호남평야와 근접하여 일제의 쌀 수탈 전초기지로 이용되었다.

(마) **울산**: 신라의 수도인 금성(경주)과 근접한 울산은, 통일신라기에 국제 무역이 발달하면서 이슬람 상인도 와서 무역하였다.

(마) **부산**: 1426년 염포(울산), 제포(창원)과 함께 3포로 개항된 부산은 16세기 이후 왜란이 자주 일어나며 일본과의 교역이 일시 폐지 또는 축소되다가 임진왜란으로 파탄되었다가, 17세기 이후로 일본과의 관계가 점차 정상화되면서 왜관(동래) 개시를 통해 다시 대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① 조선 초기(1406)에 여진과는 국경 지역인 경성, 경원에 설치한 무역소를 통하여 교역하였다.

13.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시기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고려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곧 감추고 오직 그 비밀이 탄로 날까 두려워하여 이웃사람들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원에서 사신이 올 때마다 놀라 서로 돌아보며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왔을까, 처녀를 잡으러 온 것은 아닌가, 아내와 침을 데리러 온 것은 아닌가?” 합니다.

- 「고려사절요」 -

< 보 기 >

- ㄱ. 김치를 담그는 데 고춧가루를 넣었다.
ㄴ. 남자들이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었다.
ㄷ. 여자들이 결혼을 할 때 족두리를 썼다.
ㄹ. 청포묵에 고기, 채소를 섞은 탕평채를 먹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고려 원의 간섭기(1270~1351)의 모습

원과 강화를 맺은 이후 두 나라 사이에는 자연히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많아졌고, 문물 교류가 활발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 사회에는 몽골풍이 유행하여 변발, 몽골식 복장(호복, 족두리, 연지, 장도), 몽골어(수라, ~치)가 궁중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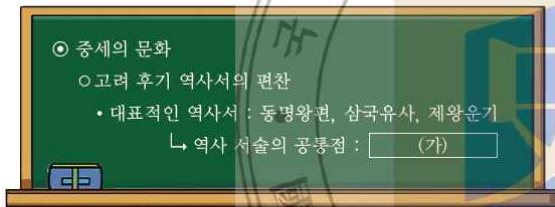
이와 반대로 고려 사람이 몽골에 건너간 수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대부분 전란 중에 포로 또는 유이민으로 들어갔거나 몽골의 강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사람이었다. 이들에 의하여 고려의 의복, 그릇, 음식 등의 풍습이 몽골에 전해졌는데, 이를 고려양이라 한다.

원의 공녀 요구는 고려에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져왔다. 결혼도감을 통하여 원으로 끌려간 여인 중에는 특별한 지위에 오른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고통스럽게 살았다. 그러므로 공녀의 공출은 고려와 원 사이에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고려에서는 끊임없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 임진왜란 중에 일본을 통하여 조선에 고추와 담배를 전래되었다. 이 때부터 한민족은 오늘날의 고춧가루를 이용한 김치를 담가 먹게 되었으며 그 전에는 동치미나 백김치로 김치를 담갔다.

㉡ 탕평채라는 음식명은 조선 후기 영조 때 여러 당파가 잘 협력하자는 탕평책을 논하는 자리의 음식상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14.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왕조의 정통성 확보
- ② 실증적인 역사 서술
- ③ 민족적 자주 의식 반영
- ④ 신라 계승 의식의 반영
- ⑤ 연대기 형태의 역사 서술

정답: ③

* 고려 후기 역사서 서술의 공통 특징

고려 후기에는 민족적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 하려는 경향이 대두하였다.

이는 무신정변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몽골 침략의 위기를 겪은 후에 나타난 변화였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역사서로는 해동고승전,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을 꼽을 수 있다.

각훈이 쓴 해동고승전(1215)은 삼국 시대의

승려 30여 명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현재 일부만 남아 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 건국의 영웅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 서사시로서, 고구려의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충렬왕 때에 일연이 쓴 삼국유사(1285)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같은 시기에 이승휴가 쓴 제왕운기(1287)도 우리 나라의 역사를 단군에서부터 서술하면서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파악하는 자주성을 나타내었다.

①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왕조의 정통성에 대한 명분을 밝히고 성리학적 통치 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서의 편찬에 힘썼다(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② 조선 후기에는 실학이 발달하면서 이익 등이 실증적이며 비판적인 역사 서술을 제시하였다.

④ 고려는 건국 초부터 고구려 계승 의식을 뚜렷하게 표방하였으나, 중기에 이르러 신라 계승 의식이 강화되었는데,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신라 계승 의식이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⑤ 연대기 형태의 역사 서술인 편년체 방식은 너무 많아 열거하기 힘들다. 기전체(삼국사기, 고려사)와 기사본말체(연려실기술)를 제외하면 거의 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15.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1월에 (가)을(를) 실행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짐이 덕이 없음에도 왕이 되었으니 불교에 의지하여 국가의 평안을 빌겠다."하고 갖가지 유희와 노래, 춤을 벌였다. 백관은 예를 행하였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뒤덮었다. 왕이 위봉루에 나가서 관람하고 이 행사를 '부처를 받들고 여러 신들을 즐겁게 하는 행사'라고 하였다. 이후 해마다 행하도록 하였다.

- ① 국제 교류의 장이었다.
- ② 고려 시대에 처음 열렸다.
- ③ 토속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 ④ 국가적 차원에서 개최하였다.
- ⑤ 훈요 10조에서 준행을 강조하였다.

정답: ②

* 고려의 팔관회

팔관회는 중동(仲冬)인 음력 11월 15일(서경은 10월 15일)에 국가행사로 치러진 고려의 도·불 혼합적 종교행사이다.

진흥왕 때(551)에 처음 시작되어 호국적인 성격이 짙은 이 행사가 국가적 정기 행사로 자리잡게 된 것은 고려조에 들어서였다. 고려 태조는 훈요십조에서 천령 및 오악·명산·대천·용신을 섬기는 대회라고 그 성격을 말하며 후대에도 마땅히 준행하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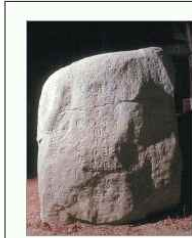
본래 팔관회는 불가에서 말하는 살생·도둑질·간음·헛된 말·음주를 금하는 오대계(五太戒)에 사치하지 말고, 높은 곳에 앉지 않고, 오후에는 금식해야 한다는 세 가지를 덧붙인 8가지의 계율을 하루 낮 하루 밤 동안에 한하여 엄격히 지키게 하는 불교 의식의 하나였다.

이 같은 팔관회가 고려에서는 이미 태조 때부터 토속신에 대한 제례를 행하는 날로 그 성격이 바뀌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만 이런 재회(齋會)를 통해 호국의 뜻을 새기고 복을 비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팔관회는 연등회와 매우 비슷한 대회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팔관회 때는 지방의 장관들이 글을 올려 하례하고, 송(宋) 상인이나 여진(女眞) 및 탐라(耽羅)의 사절이 축하의 선물을 바치고 무역을 크게 행하는 국제적 행사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의식은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 987년(성종 6)에 폐지되었다가 1010년(현종 원년)에 부활될 때까지를 제외하고는 고려 전시기에 거의 매년 행해지던 중요행사였다.

16.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보물 제614호로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홍사리에 있다. 고려 우왕 13년(1387)에 향나무를 묻고 세운 것으로, 비문에는 내세의 행운, 왕의 만수무강과国泰民安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 ① 상평창의 역할을 알아본다.
- ② 도선비기의 내용을 파악한다.
- ③ 향교의 조직과 역할을 조사한다.
- ④ 도교의 제사 의식 과정을 정리한다.
- ⑤ 불교 신앙 조직의 활동을 찾아본다.

정답: ⑤

* 농민 공동 조직 향도(사천 매향비)

고려와 조선 시대의 농민은 일상 의례와 공동 노동 등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다졌다. 공동체 조직의 대표적인 것이 불교의 신앙 조직이었던 향도였다.

향도는 매향 활동(불교 신앙의 하나로, 미륵을 만나 구원받고자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는 활동)을 하면서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불상, 석탑을 만들거나 절을 지을 때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후기에 이르러 점차 신앙적인 향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되는 향도로 변모되어 마을 노역, 혼례와 상장례, 민속 신앙과 관련된 마을 제사 등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 조직으로 발전해 갔다.

① 고려 시대에 개경과 서경 및 각 12목에는 상평창을 두어 물가의 안정을 꾀하여 백성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신라 말기에 도선과 같은 선종 승려들은 중국에서 유행한 풍수지리설을 들여왔는데 '도선비기'는 이에 대한 최초의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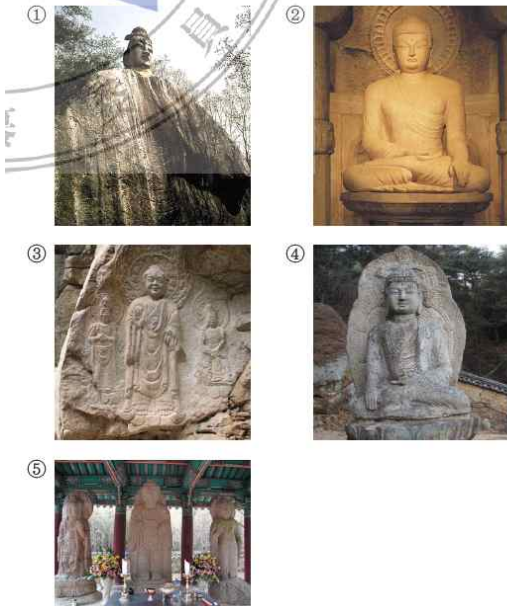
③ 향교는 고려, 조선의 중등 교육 기관이다. 특히 조선은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부·목·군·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되었다. 향교에는 그 규모와 지역에 따라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 또는 훈도를 파견하였다.

④ 불로장생과 현세의 구복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교는 여러 가지 신을 모시면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빌며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였다. 그리하여 도교 행사가 자주 베풀어졌고 궁중에서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초제가 성행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불교와 도교 역시 크게 위축되어 사원이 정리되고 행사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제천 행사가 국가의 권위를 높이는 점이 인정되어 소격서를 설치하고, 참성단에서 일월성신에 제사 지내는 초제가 시행되었다.

17.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불상으로 옳은 것은? [1점]

고려 시대의 불상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독특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고려 전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지역 특색이 잘 드러난 불상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정답: ①

* 고려 전기의 대형 불상

고려 시대의 불상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독특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초기에는 광주 춘궁리 철불 같은 대형 철불이 많이 조성되었다.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나 안동 이천동 석불처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지역 특색이 잘 드러난 거대한 불상도 조성되었다. 또,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같이 신라 시대 양식을 계승한 걸작도 있다.

- ① 안동 이천동 석불(11세기 경)
- ② 석굴암 본존불(8세기 중반, 통일신라)
- ③ 서산 마애 삼존불(7세기 초, 백제)
- ④ 경주 남산 미륵곡 석불 좌상(8세기 경)
- ⑤ 경주 배리 석불 입상(7세기 초, 신라)

18. 지도의 행정 구역이 성립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보 기 >

- ㄱ. 주현보다 속현의 수가 많았다.
 ㄴ. 각 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하였다.
 ㄷ. 지방관은 상피제의 적용을 받았다.
 ㄹ.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을 통제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8도 지방 체제가 성립된 조선 시대

조선은 전국을 8 도로 나누고, 고을의 크기에 따라 지방관의 등급을 조정하고, 작은 군현을 통합하여 전국에 약 330여 개의 군현을 두었다. 고려 시대까지 특수 행정 구역이었던 향, 부곡, 소도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키거나 포함시켰다.

나아가,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하여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 지방의 행정·사법·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수령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향리는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 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시켰고, 지방관은 임기제(관찰사 1년, 수령 5년)와 상피제(출신지에 부임 못함)를 적용하여 통제하였다..

한편, 수령을 지휘, 감독하고 백성의 생활을 살피기 위하여 전국 8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였고, 수시로 암행어사를 지방에 보내기도 하였다.

㉠ 고려는 중앙에서 지방관이 직접 파견되는 것은 군·현과 진까지였다. 그러나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더 많았다.

㉡ 통일 신라 시대에는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을 파견하였고,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19.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중종에 의해 등용된 그는 유교적인 도덕 국가의 건설을 정치적 목표로 삼았다. 그는 정몽주와 김종직의 문묘종사를 주장하였고, 현량과를 실시하여 숨어 있는 인재를 등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 < 보 기 > —

- ㄱ. 서인을 몰아내는 기사환국을 주도하였다.
- 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포함시켰다.
- ㄷ. 위훈 삭제를 주장하여 훈구 세력의 반발을 샀다.
- ㄹ. 도교 의식을 담당한 소격서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조선 중종 대 사람의 대표 조광조

중종 반정(1506) 후 중종은 사람을 다시 등용하여 유교 정치를 일으키려 하였다. 당시 명망이 높았던 조광조가 중용되면서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하여 사람이 대거 등용되었다. 이들은 3사의 언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 표방하면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신들의 반발로 말미암아 조광조를 비롯한 사람 세력은 대부분 제거되었다(기묘사화: 1519).

• 조광조의 개혁 정책: 조광조를 비롯한 당시의 사람은 경연의 강화, 언론 활동의 활성화, 위훈(僞勳) 삭제, 소격서의 폐지, 소학의 보급, 방납의 폐단 시정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 기사환국(1689): 이남기 등 남인이 원자(장희빈 소생)를 정함에서 서인을 몰아내고 재집권하고, 서인의 태두인 송시열 등을 사하였다.

㉡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제자인 김일손이 실록의 사초로 포함한 것을 유자광, 이극돈의 훈구세력이 문제 삼아 무오사화(1498)를 일으켰다.

20.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3점]

이조 전랑 김효원의 후임으로 심충겸을 추천했으면 합니다.

심충겸은 인순왕후의 동생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1506	1519	1545	1592	1623	1659
(가)	(나)	(다)	(라)	(마)	
중종 반정	기묘 사화	율사 사화	임진 왜란	인조 반정	기해 예송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③

* 동, 서 봉당의 발생(1575)

1567년 선조가 즉위하면서 그 동안 향촌에서 세력 기반을 다져 오던 사림 세력이 대거 중앙 정계로 진출하여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림 세력은 척신 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게 되었다. 명종 때 이후 정권에 참여해 온 기성 사림은 척신 정치의 과감한 개혁에 소극적이었다. 반면에, 명종 때의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새롭게 정계에 등장한 신진 사림은 원칙에 더욱 철저하여 사림 정치의 실현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두 세력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김효원을 비롯한 신진 관료가 중심이 되어 동인이 형성되었고, 심의겸 비롯한 기성관료가 중심이 되어 서인이 형성되었다.

봉당은 인사권을 가진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김효원과 심충겸)와 공론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것에서 비롯되었다(1575).

이조 전랑은 삼사의 관리에 대한 인사를 좌우할 수 있었고, 스스로 자기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인 삼사의 관리들은 언론을 통해 이조 전랑을 지원하였다. 이처럼 언론기관과 이조 전랑은 봉당정치 운영에서 공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들 자리를 둘러싸고 봉당 간의 대립이 심해졌다.

동인은 이황과 조식, 서경덕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신진 세력이 참여하여 먼저 봉당의 형세를 이루었다. 반면에, 서인은 이이와 성혼의 문인이 가담함으로써 비로소 봉당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후 봉당은 정치적 이념과 학문적 경향에 따라 결집되어 정파적 성격과 학파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21.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향촌 사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만약 약원이 상을 당하면 초상 때에는 사화(司貨)가 약정(約正)에게 고하여 마포 3필을 보내고, 동약(同約)은 쌀 5되, 빈 가마니 3장씩을 내어 장례를 돕는다. 또 치전(致奠) 때에는 사화가 보관하던 면포 5필, 쌀 10말을 부장(贈狀)을 갖추어 함께 보낸다. 장사를 지낼 때에는 각각 건강한 중 1명을 보내되 사흘치 식량을 싸 가지고 가서 일하게 한다.

- ① 공동 노동의 작업 공동체였다.
- ② 지방 농민을 교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 ③ 이이(李珥) 등에 의해 널리 보급되었다.
- ④ 지방의 사족이 주로 직임에 임명되었다.
- ⑤ 4대 덕목을 바탕으로 규약을 제정하였다.

정답: ①

* 향촌 사회 조직 향약

지방 사족은 향촌 사회를 그들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향약 조직을 만들었다. 향약은 종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한 이후(여씨 향약, 기묘사화 때 일시 폐지), 이황(예안 향약)과 이이(서원 향약, 해주 향약)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본래 향촌에서는 마을 단위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 풍습이 있었다. 향약은 이러한 전통적 공동 조직과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유교 윤리를 가미하여 교화 및 질서 유지에 알맞게 구성한 것이다.

보통 '착한 일을 서로 권한다'(德業相勸), '잘못된 것을 서로 규제한다(過失相規)', '서로 예절을 지킨다(禮俗相交)', '어려운 일을 서로 돕는다(患難相恤)'의 4대 덕목이 공통적이었다.

향약은 향촌의 양반에서 노비까지 포함하여 규율하고, 향약 운영의 간부(직임: 약정, 직일)는 향안에 오른 사람 중에서 임명하였다.

향약은 조선 사회의 풍속 교화에 많은 역할을 하였고, 향촌 사회의 질서 유지와 함께 치안까지 담당하는 등 향촌의 자치 기능을 맡았다(주민 통제). 향약의 보급으로 지방 사림의 지위는 강화되었으나, 지방 유력자가 주민을 위협, 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① 촌락의 농민 조직으로 두레와 향도가 있었다. 두레는 공동 노동의 작업 공동체였다

22. 다음은 임진왜란의 주요 전투이다.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점]



-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⑤ (다) - (가) - (나)

정답: ②

* 임진왜란의 주요 전투

1592년 4월, 왜군이 부산진과 동래성으로 침략해 오자, 정발과 송상현 등이 힘껏 싸웠으나 막지 못하고 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그 후, 왜군은 세 길로 나누어 북쪽으로 쳐들어왔다. 조선 정부는 충주에 방어선을 치고 그들의 북상을 막으려 하였으나, 이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 왜군이 한양 근처에 육박하자 선조는 의주로 피란하였다. 왜군은 평양과 함경도 지방까지 북상하여 한반도 전역을 그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였다.

조선은 육전에서와 달리 해전에서는 곳곳에서 왜군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고, 이어서 거북선과 판옥선을 앞세워 사천, 당포, 한산도 앞 바다 등 여러 곳에서 승리를 거두

었다. 조선은 수군의 활약으로 제해권을 장악하여,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전라도 곡창 지대와 황해안을 지킬 수 있었다. 수군이 해전에서 승리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향토를 방어하고 조국을 구하려고 하였다. 향토 지리에 익숙한 의병은 그에 알맞은 전술과 전략을 개발하여 적은 병력으로도 적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의병은 경상도에서 광재우가 처음 일으킨 후 조헌, 고경명, 정문부, 유정(사명대사) 등이 여러 지방에서 왜군과 싸웠다.

수군이 승리를 거두고 의병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무렵, 명의 원군까지 도착하여 조선은 왜군에 반격을 가하여 평양성에서 조. 명 연합군은 크게 승리하였으나(1593.1.6), 벽제관에서 일본군은 명군을 대파하여(1593.1.25.) 위기에 빠졌다. 다행히 권율이 행주 산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1593.2)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에 경상도 해안 지방으로 밀려났던 왜군은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휴전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3년간을 끌어 오던 화의 교섭이 실패하자, 왜군은 다시 공격해 왔다(정유재란, 1597). 임진년과 달리 이번에는 조선군도 군비를 잘 갖추고 명군과 협조하여 왜군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 또, 물러났던 이순신이 다시 기용되어 명량에서 왜군을 대파하였다.

마침 도요토미가 사망하고 전세도 불리해지자 왜군은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이순신은 퇴각하는 왜군을 노량에서 격멸하였으나, 적의 유탄에 맞아 장렬하게 전사하였다(1598.11.19.). 이로써 7년에 걸친 전쟁은 끝이 났고, 일본의 침략 의도는 좌절되었다.

23.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조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영의정 이원익이 아뢰기를, “지금 하나의 관청을 설치하여 매년 봄, 가을 백성에게서 쌀을 거두어들여, 1결당 8두씩 거두어 본청에 보내게 합니다. 그러면 본청은 당시 공물의 가격을 보고 넉넉히 값을 쳐서 공인에게 지급하고, 때맞춰 구입하도록 하여 물가를 올리는 길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차례 거둘 때마다 1두씩 빼서 해당 고을에 지급하고 수령의 공사 비용으로 삼게 하십시오.”하니 왕이 이를 따랐다.

- 「광해군일기」 -

- ①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 ② 선혜청을 두어 제도의 운영을 주관하였다.
- ③ 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 ④ 지주에게 1결당 2두를 부담시켜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였다.
- ⑤ 가호에 부과하던 세금을 토지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정답: ④

* 조선 후기 공납의 전세화 대동법

방납의 폐단과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자,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공납)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고(1608),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1708년 완결, 평안·함경도와 제주도 제외).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고(공납의 전세화), 주무 관청은 선혜청이다.

대동법에서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이 때문에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던 공물 부담은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그러나 양반 지주들에게는 부담이 늘어나 꺼려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기까지 약 100여년이 걸렸다.

④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장(장정 1인당 2필->1필)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24. 다음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중종 23년(1528) 10월 10일, 딸들에게 작성해 준 유서
억달에게 노비와 전답도 많이 주었으며, 천첩 자식으로 봉
사(奉祀)하는 것도 편치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사도 알기 힘들
다. …… 너희들은 비록 딸이라도 나의 골육으로 정리가 매
우 중하기 때문에, 노비와 전답을 혈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서 우리 부부의 제사를 거행하라.
만일 불초한 자가 마음을 나쁘게 써서 분쟁하는 기미가 있거
든 이 문서의 내용에 따라 관가에 고하여 바로 잡아라.
재주(財主) 진사 송○○ [수결(手決)]

〈 보 기 〉

- ㄱ. 혼인 풍습에서 시집살이가 보편화되었다.
- ㄴ. 자녀에게 재산을 균분 상속하는 일이 많았다.
- ㄷ. 부계 중심의 유교적 종법 질서가 확고해졌다.
- ㄹ.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맡아 지내는 일이 널리 행
해졌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조선 전기(17세기 이전)의 사회상

조선의 가족 제도는 부계와 모계가 함께 영
향을 끼치는 형태에서(전기) 부계 위주의 형
태로 변화하여 갔다(후기).

조선 중기까지도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 집
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아들과 딸
이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는 경우가
많았다. 집안의 대를 잇는 자식에게 5분의 1
의 상속분을 더 준다는 것 외에는 모든 아들
과 딸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재산 상속을 같이 나누어 받는
만큼 그 의무인 제사도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유교적 종법 질서에 의한 부
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혼
인 후에 곧바로 남자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제사는 반드시 큰아들이 지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재산 상속에서도
큰아들이 우대를 받았다. 처음에는 딸이, 그
리고 점차 큰아들 외의 아들도 제사나 재산
상속에서 그 권리를 잃어 갔다.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
이 일반화되었으며, 부계 위주의 족보를 적
극적으로 편찬하였고, 같은 성을 가진 사람
끼리 모여 사는 동성 마을을 이루어 나갔다.
따라서, 이 때에는 개인이 개인으로 인정받
기보다는 종중이라고 하는 친족 집단의 일원
으로 인식되었다.

25. 다음 대화의 왕이 재위했던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보 기 >

- ㄱ. 허준 등이 동의보감을 편찬하였다.
- ㄴ.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설치되었다.
- ㄷ. 서인이 권력을 잡고 친명 정책을 주장하였다.
- ㄹ. 이괄의 난으로 궁궐이 불타고 왕이 피난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인조(1623~1649) 대의 역사적 사실

• 제시된 자료는 인조 반정으로 복원이 물러가고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되자 광해군 때의 복인(지춘추관사 이이첨, 동지춘추관사 박건 등) 정권이 작성한 선조 실록을 수정하자는 의견에 관한 것이다.

• 인조 때의 서인 정권은 광해군 때와는 달리 명을 가까이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을 펴서 후금의 경계심을 사게 되었다. 마침 조선에서 이괄의 난(1624)이 일어나 궁궐이 불타고 왕이 공주까지 피난하는 등 사회가 혼란해지자, 후금의 군대가 이를 틈타 압록강을 건너 황해도 지역까지 쳐들어왔다(정묘호란, 1627). 그러나 당시에는 후금의 군사력이 조선을 무력으로 정복할 정도는 아니어서 일단 화의를 맺고 되돌아갔다.

그 후, 국력이 더욱 커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을 압박하여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해 왔다. 조선 정부가 이를 거절하자, 청의 태종은 10여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다시 쳐들어왔다(병자호란, 1636). 한양이 청군에 의해 점령되자, 인조는 신하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45일간 항전하였으나, 결국 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강화를 맺었다.

㉠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1608~1623)은 전쟁의 뒷수습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토지 대장과 호적을 새로 만들어 국가 재정 수입을 늘렸고,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을 일으켰다. 또, 성곽과 무기를 수리하고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국방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전란 중에 질병이 널리 퍼져 인명의 손상이 많았던 경험을 되살려,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하였다(1610).

㉡ 정조(1776~1800)는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장용위:1785->장용영:1793)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26. 다음 주제에 대한 모듈별 발표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모듈	발표 제목
①	1모듈	송시열, 노론의 영수
②	2모듈	최제우, 동학을 창시한 교조
③	3모듈	김정희, 금석학의 대가이자 명필
④	4모듈	홍경래, 차별에 항거한 봉기군 지도자
⑤	5모듈	임상옥, 인삼 무역으로 거부가 된 상인

정답: ①

* 19세기의 주요 인물들

송시열(1607~1689): 서인(노론)의 산림 지도자로서 효종 때의 북벌 운동을 주도하였고, 현종 때의 예송 논쟁에서는 신권을 강조하는 상복설(1년, 9개월)을 주장하였다. 남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인 노론의 영수였다.

최제우(1824~1864): 경주 출신의 잔반으로 서학에 대항한다는 의미에서의 동학(유+불+선)을 창시하였다.

김정희(1786~1856): 순조, 철종 때의 김정희는 '금석과안록'을 지어 북한산비와 황초령 등 진흥왕 순수비를 소개하였고, '세한도' 등의 그림과 '추사체'로 대표되는 독특한 서체로 유명하다.

홍경래(1771~1812): 몰락한 양반 출신으로 영세 농민, 중소 상인, 광산 노동자 등을 규합하여 세도정치기 최초의 농민 봉기를 주도하였다(1811). 처음 가산에서 난을 일으켜 선천, 정주 등을 별다른 저항없이 점거하였다. 한때는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였으나 5개월 만에 평정되었다.

임상옥(1779~1855): 조선 후기의 무역 상인(만상). 최초로 국경 지대에서 인삼 무역권을 독점, 천재적인 상업 수완을 발휘하였다. 축적한 부를 빈민구제 등에 썼다.

27. 밑줄 그은 ㉠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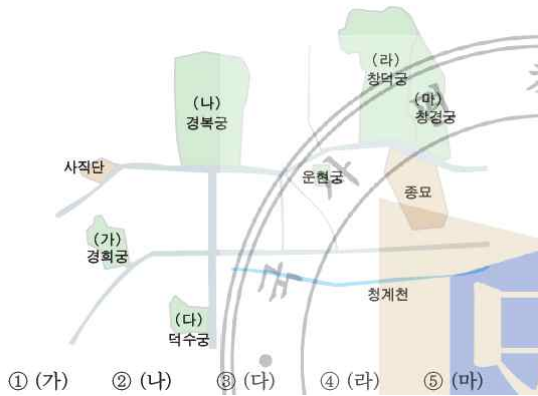
[2점]



제1차 역사 동아리 답사

주제 : 조선의 궁궐을 찾아서

1997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이 궁궐은 태종 때에 창건되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왕들이 거처한 곳입니다.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된 후에 재건과 중건 과정을 거쳤으며, 정조 때에는 후원의 부용지를 중심으로 부용정, 주합루, 서향각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는 순종이 여생을 보낸 궁이기도 합니다.



정답: ④

* 창덕궁

개성에서 한양으로 환도 후 태종에 의해 지어진 별궁(1405). 경복궁이 임진왜란으로 부타버리자, 이후 약 300여년 간 사실 상의 정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창덕궁은 현재 남아 있는 궁궐 가운데 가장 보존 상태가 좋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1997). 특히 후원(비원)의 부용정, 서향각, 주합루는 국왕의 연구, 산책 공간으로 매우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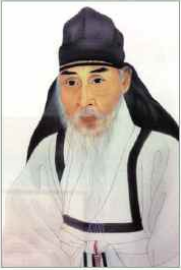
경희궁: 광해군이 1617~1620년에 걸쳐 지은 궁으로 술사들이 왕기(王氣)가 서려있다고 하는 정원군(후일 인조)의 옛집을 몰수하여 지은 별궁이다(경덕궁). 이 곳에서 숙종과 경종이 태어났고, 숙종.영조.순조가 승하했으며, 경종.정조.현종이 즉위한 조선 후기 정치사의 중심 공간이다.

덕수궁: 본래 이름은 경운궁이고, 세조의 장손인 월산대군의 사저가 있던 곳이다. 임진왜란 이듬해(1593) 선조가 한양으로 환도 후 이 사저를 행궁 삼아 거소하였고 창덕궁으로 환어하지 못하고 이 곳에서 승하였다. 광해군이 이 곳에서 즉위했으며, 무엇보다도 고종이 아관파천 후 이곳으로 환어하여 이후 대한제국의 정궁 역할을 하였다.

경복궁: 조선의 정궁. 1395년 종묘.사직단과 함께 지어졌다. 왕자의 난, 임진왜란 때의 화(禍)로 정궁으로서의 역할은 실제적으로 미흡하였다. 273년 간 폐허로 있다가 흥선대원군의 무리한 공사로 다시 지어졌다.

창경궁: 세종이 아버지 태종을 위해 지은 궁으로, 본래 '수강궁'이라 불리웠다. 성종 때 선대의 왕비인 정희(세조).소혜(덕종).안순(예종)왕후를 위하여 새로 짓고 창경궁이라 하였다. 일제 시대에 수난을 당하여 창경원으로 격하되어 동물원, 식물원으로 이용되고, 일제의 상징인 벚나무가 심겨지기도 하였다.

28.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국가에서 한 집의 재산을 오히려
축량하고 농토 및 부(負)를 한정하여
한 집의 영업전으로 만들어 주되, 당
나라의 조세 제도처럼 운영한다. 농
토가 많은 사람에게서 빼앗지 않고
모자라는 사람에게도 더 주지 않으
며 돈이 있어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는 비록 백 결, 천 결이라도 모두 허
락하고 농토가 많아서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영업전 몇 부를 제외하
고는 역시 허락한다.

- 「곽우록」 -

- ① 안정복, 이종환 등이 그의 사상을 계승하였다.
- ② 상공업 진흥을 위하여 화폐 유통을 강조하였다.
- ③ 사회의 폐단을 여섯 가지 쯤으로 규정하여 비판하였다.
- ④ 조선의 3대 도적으로 임궽정, 장길산, 홍길동을 들었다.
- ⑤ 봉당의 폐해를 지적하고, 사농 합일론(士農合一論)을 주
장하였다.

정답: ②

* 중농적 실학자 이익(1681~1763)

조선 후기 농업 중심 개혁론을 더욱 발전시
키고 이를 대표하는 사람은 18세기 전반에
주로 활약한 이익이었다.

그는 유형원의 실학 사상을 계승, 발전시켰
으며, 많은 제자를 길러 내 학파를 형성하였
고(성호 학파: 안정복, 권철신 등), 이종환,
정약용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는 자연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론으
로 성호사설의 곽우록에서 한전론(限田論: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
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
매를 허용)을 주장하고, 나라를 쪼먹는 여섯
가지의 폐단(6쯤: 노비 제도, 과거 제도, 양
반 문벌 제도,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봉당론: 조선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모
순에서 발생한 이해득실로 양반은 증가하는
데 관직은 일정한데에 따른 선비들의 먹이
다툼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반의 수와 특권을 제한해야 하고, 양
반들도 무위도식하지 말고 농토로 돌아가 생
산에 직접 종사해야 한다는 사농합일론(士農
合一論)을 주장하였다.

소농 보호책: 폐전론(廢錢論), 상공업 억제,
1/10세, 사창제 실시 - 유통 경제의 발전이
농촌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역사 인식: 실증적이며 비판적인 역사 서술
(시세론)을 제시하고,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
서 벗어나 우리 역사를 체계화할 것을 주장
하였으며, 민족에 대한 주체적 자각을 높이
는 데 이바지하였다. 특히 단군->기자->삼한
(마한)으로 이어지는 정통론은 제자인 안정
복에게 계승되었다.

④ 성호사설에서 이익은 조선의 3대 도적으
로 홍길동, 임궽정, 장길산 등을 꼽으며, 정
치의 부패가 곧 민생의 파탄을 낳고 이것이
도적을 만드는 원인이라 보았다.

29.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시골 천인의 자식은 때때로 훌륭한 벼슬을 하기도 하는데 세족·명가의 후손인 (가)은(는) 자자손손 영원히 *금 고시چه 버리니 등용하고 버리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신하가 되어서도 임금에 가까이 모실 수 없으니 군신의 의리가 멀어지고, 자식이 되어서도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부자의 인륜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을 버리고 먼 일가붙이를 양자로 삼으니, 인륜을 파괴하고 하늘의 이치를 어김이 너무도 심합니다.

- 「규사」 -

*금고(禁錮) : 벼슬 길을 막는 일

— < 보 기 > —

- ㄱ. 성리학적 명분론에 의해 차별받았다.
- ㄴ. 신분 해방을 위해 형평 운동을 일으켰다.
- ㄷ.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 ㄹ. 각 관아에 차출되어 일정 기간 노역에 종사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서얼

서얼(양인 첩의 자제:서, 천인 첩의 자제:얼)은 양반의 자손 가운데 첩의 소생을 이르는 말이다. 서얼은 중인과 같은 신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중서라고도 불리었다. 이들은 문과에 응시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간혹 무관직에 등용되기도 하였으나 제사나 재산 상속 등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서얼은 양반 사대부의 소생으로 인구비중은 높았으나 성리학적 명분론에 의하여 서얼금고에 의해 전문기술직 이외에는 벼슬길이 법제적으로 막혀있는 등 여러 분야의 사회 활동에서 각종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커져 갔다(賤者受母-限品敍用).

서얼에 대한 차별은 임진왜란 이후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전란으로 재정적 타격을 받은 정부가 납속책을 실시하고 공명첩을 발급하자 서얼들은 이를 이용하여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영·정조 때에 서얼을 어느 정도 등용하자 이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수차례에 걸쳐 집단적으로 상소하여 동반(문반)이나 홍문관 같은 청요직으로의 진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였다(서얼통청운동). 그리하여 정조 때에는 정유서얼허통절목(1777)을 발표를 계기로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 서얼 출신들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1851(철종2년) 신해통공조치로 사관등용에 조치가 취하여져 서얼 문과 합격생의 승문원 분관이 허용되어 완전한 청요직 허통이 이루어졌다.

㉠ 일제 시대에 백정 출신들은 경상 남도 진주에서 형평사를 창립하고(1923),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형평 운동을 펼쳐 나갔다.

㉡ 요역을 말하며 양인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경작 토지를 중심으로 중앙 관부에 동원되는 역과 지방 관부에 동원되는 잡역으로 크게 나뉘어 체계화되었다. 경국대전에 따른 원칙은 토지 8결에 1부(夫)가 원칙이며 연간 6일로 제한되어 있다.

30.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중앙과 지방의 군국기무를 도맡아 관할하는 기구이다.
• 도제조는 현임 또는 전임 의정이 의례적으로 겸임하도록 하며, 제조는 재신으로 변경의 사정에 밝은 자로서 겸임하게 하고, 정원은 없다. 이·호·예·병 4조의 판서 및 강화유수로서 상례적으로 겸임케 하며, *유사 당상 3명은 제조로서 군무를 아는 사람을 상주하여 임명한다.
• 낭청은 12명인데 3명은 문신이고, 1명은 병조의 무비사 낭청이 겸임하고, 8명은 무신으로 한다.
- 「만기요람」 -
*유사 당상 : 사무를 관장하는 당상관

- ① 고종 때 흥선 대원군에 의해 폐지되었다.
- ② 임시 기구로 시작되어 상설 기구로 바뀌었다.
- ③ 국가의 제반 사무를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 ④ 19세기 세도 가문의 권력 기반으로 활용되었다.
- ⑤ 정조 때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로 창설되었다.

정답: ⑤

* 비변사

중종 때 3포왜란(1510)이나 명종 때의 을묘왜변(1555) 같은 소란이 자주 일어나자 조선은 비변사를 설치하여 군사 문제를 전담하게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였고, 일본에 사신을 보내 정세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이렇듯 비변사는 여진족과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 회의 기구로 설치되었으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점차 상설화 되고 구성원이 3정승을 비롯한 고위 관원으로 확대되었고 (전·현 의정, 공조를 제외한 5조판서, 대제학, 5군영대장, 4도유수), 그 기능도 군사 문제뿐 아니라 외교, 재정, 사회, 인사 문제 등 거의 모든 정무를 총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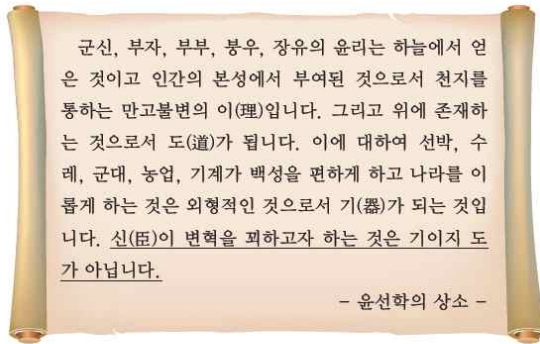
이와 같이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고, 국가의 제반 사무를 소수의 당상들이 회의하여 결정하자 의정부와 6조 중심의 행정 체계는 유명무실해졌다.

특히 세도정치기에는 비변사가 핵심적인 정치 기구로 자리잡았으며, 유력한 가문 출신의 몇몇이 실제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흥선 대원군이 집정하면서 의정부와 비변사의 한계를 규정, 국정 의결권을 의정부에 이관하면서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후 3군부(三軍府) 제도를 부활시켜 군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폐지되었다(1865).

⑤ 정조는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1785)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31. 밑줄 그은 사상의 영향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교조 신원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웠다.
- ③ 광혜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 ④ 이항로 등이 통상 반대론을 전개하였다.
- ⑤ 독립 협회에서 의회의 설립을 건의하였다.

정답: ③

* 개화 상소와 동도서기 개화운동

• 제시된 자료는 유명한 윤선학의 동도서기 개화 정책 건의 상소이다(1882).

• 갑신정변 후 고종과 심순택, 김홍집의 집권층(동도서기 정권)은 개화당의 개혁 조치를 무효화하였다. 그러나 자주독립과 왕권신장을 위해 개화 정책이 필요하며(1886년 노비세습제 폐지)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성주보”(1886, 최초의 상업광고 세창양행의 광고 게재)를 발간했고, 근대 학문과 외국어를 교육하는 육영공원(1886), 서양식으로 군사를 훈련시키고 사관을 양성하는 연무공원(1888, 사관 양성), 광무국(1887, 광산 업무)과 전보국(1885, 전신 업무) 등을 설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외국인 고문과 기술자를 초빙하였다.

또한 서양식 의료 시설도 도입되어 1885년에 최초로 광혜원(->제중원)이 세워졌다.

① 동학 교도들의 교조신원운동(1892~1893: 공주->삼례->서울->보은)

② 신미양요 직후 흥선 대원군의 척화비 건립(1871)

④ 병인양요(1866) 당시 이항로 등 위정척사론자들의 척화주전론 전개

⑤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를 통한 의회(중추원) 설립 건의(1898)

32. 다음 자료의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 대저 2천만 중 여자가 1천만이요, 1천만 중에 가락지 있는 이가 반은 넘은 터이니 가락지 매 쌍에 2원씩만 셈하고 보면 1천만 원이 여인 수중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 우리 동경 유학생으로 말하더라도 근 800인이라, 우리는 일제히 담배를 끊어 국채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고자 결심 동맹하였다.

- ① 김광제, 서상돈 등의 발의로 시작되었다.
- ②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③ 독립신문의 주도로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④ 일제의 방해와 탄압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 ⑤ 국민들의 성금으로 국권을 회복하자는 경제적 구국 운동이었다.

정답: ③

* 국채보상운동(1907)

대한 제국은 통감부가 설치된 이래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각종 생활 시설 마련과 화폐 정리 사업 과정에서 대한 제국의 1년 예산과 맞먹는 1,3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애국적 지식인들은 일본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 경제적 자주권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여겼다. 이에 국민의 성금으로 국채를 보상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다(경제적 구국 운동).

서상돈, 김광제 등의 주도하에 대구에서 결성된 국채보상기성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국채 보상 운동은 각종 계몽 단체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의 언론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각계각층의 호응을 받으며 전국 및 해외(일본 유학생 및 러시아 교민도 참여)로까지 확산되었다. 남자들은 금연으로 돈을 모으고 부녀자들은 반지와 비녀를 모아 보상금으로 냈다.

이에 대해 일제는 송병준 등 친일파가 지휘하던 매국단체 일진회를 이용하여 방해하고, 통감부에서 국채보상회의 간사인 양기탁을 보상금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워 구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탄압했다. 결국 양기탁은 무죄로 석방되었지만 국채보상운동은 더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다. 이 운동은 우리 민족의 강렬하고 자발적인 애국정신이 발휘된 국권회복운동으로 평가된다.

③ 독립신문(1896~1899)

33. 다음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아관 파천 이후 제국주의 열강은 두만강 삼림 벌채권, 울릉도 삼림 벌채권, 경의선 부설권, 경인선 부설권, 운산 금광 채굴권 등 국가의 각종 이권을 침탈하였다. 이에 독립 협회는 구국 선언 상소문을 국왕에게 올렸고,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하는 자주 국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① 대한매일신보를 읽고 있는 청년
- ② 원각사에서 신극을 관람하는 학생
- ③ 영국의 거문도 점령에 항의하는 관리
- ④ 만민 공동회에서 연설을 듣고 있는 시민
- ⑤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에 분노하는 군인

정답: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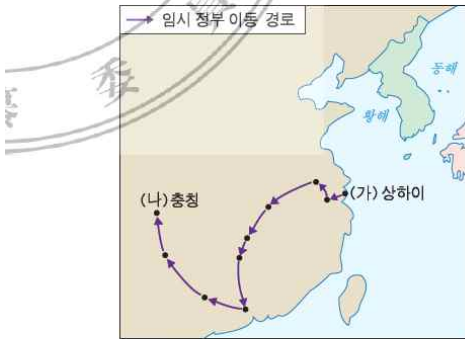
* 독립협회의 이권수호운동이 있던 시기의 사회상(1898)

독립 협회는 과거 갑신정변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 실패하였던 점을 교훈으로 삼아 민중을 일깨우는 계몽 활동에 앞장섰다. 이를 위해 독립 협회는 국민의 성금을 모아 독립문을 건립하고 강연회 및 토론회와 대중 집회를 열었으며, 신문과 잡지를 간행하였다.

한편 아관 파천 이후 러시아의 간섭과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자 독립 협회는 자주 국권 확립을 촉구하는 구국 선언 상소문(1898.2)을 올리고, 종로에서 만민 공동회를 열어 자주 국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군사 고문과 재정 고문을 철수시키고, 부산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철회하였으며 한·러 은행을 폐쇄하였다.

- ① 항일 언론 대한매일신보 창간(1904)
- ② 서양식 연극 극장 원각사 설립(1908)
- ③ 영국의 거문도 점령(1885~1887)
- ⑤ 고종의 강제 퇴위(1907)

34. (가), (나) 지역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전개한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 보 기 >
- ㄱ. (가) -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 강령을 공포하였다.
 - ㄴ. (가) - 비밀 행정 조직으로 연통제와 교통국을 두었다.
 - ㄷ. (나) - 한국 광복군을 조직하였다.
 - ㄹ. (나) -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정답: ③

* 임시 정부의 시기별 활동

(가) 상해 시기(1919~1940): 초기의 임시 정부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민족 독립 운동을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중추 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담당하였다. 또, 연통제와 교통국 등을 통하여 독립

운동 자금 모금과 정보 수집에 기여 하였다.

임시 정부는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독립을 주장하였고,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두어 이승만을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한국 독립 문제를 국제 여론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또, 임시 정부는 애국 공채를 발행하고, 기관지로 독립 신문을 간행하여 배포하였으며, 사료 편찬소를 두어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다) 충칭 시기(1940~1945): 임시 정부는 1932년의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상하이를 떠나 절강성 항저우로 이전하였다. 이 시기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중국 국민당의 원조금과 미주 지역의 교민들이 보낸 애국 의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였다.

중·일 전쟁 중 일본군이 항저우로 침략하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호남성 창사 등을 거쳐 1940년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 사천성 충칭에 정착하였다.

1940년 9월 충칭으로 옮긴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1940.9.17.).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인사들은 단일한 민족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충칭에 정착하기 직전에 한국 독립당(조소앙), 한국 국민당(김구), 조선 혁명당(지청천)을 해체하고 한국 독립당을 새롭게 결성하였다(1940.5).

한국 독립당은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위원을 통해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건국 강령은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보장하는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 정신을 표방하였으며 광복을 앞두고 분열된 민족 운동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의지도 담고 있었다.

35. 다음 주장을 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 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에서 발전하여 공간까지 확대하는 심적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그리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니라.

- 「조선상고사」 -

- ① 한국사 연구에 유물 사관을 적용하였다.
- ② 여유당전서를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③ 진단 학회를 설립하여 실증주의 사학을 발전시켰다.
- ④ 유교의 개혁을 주장하는 유교 구신론을 제창하였다.
- ⑤ 독사신론을 발표하여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답: ⑤

*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1880~1936)

일찍이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1908)을 연재하여 왕조 사관과 사대주의를 비판하면서 민족 중심의 자주적 역사관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 후 신채호는 해외에서 독립 운동에 몸바쳐 활동하면서(초기 임정 -> 무정부주의) “조선상고사(1931,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파악)”, “조선사연구초(1929, 묘청의 난을 조선 역사의 일천년대 제일대 사건으로 파악)” 등의 저술을 통해 고대사 연구에 주력하였다. 그는 고대사에 살아 숨 쉬는 자주적·주체적인 민족 고유의 사상인 ‘낭가 사상’의 존재에 주목하고, 이러한 정신을 되살려 민족 독립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1930년대에 백남운은 유물사관에 입각한 사회 경제사학을 제시하여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식민주의 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② 1935년에는 정약용 서거 100주년을 계기로 정인보, 안재홍 등이 함께 <여유당전서>를 교열·간행하는 등 조선학운동을 주도하였다.

③ 이병도는 국학 연구 단체인 진단 학회를 설립(1934)을 주도하며 실증주의 사학을 발전시켰다.

④ 박은식은 구한말 유교 구신론(1909)을 제창하면서 근대 교육과 애국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36. 다음 사업이 실시된 결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일제는 1905년 1월부터 일본 제일 은행을 앞세워 화폐 정리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기존에 통용되던 엽전과 백동화를 새로운 화폐로 교환하였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화폐 가치가 불안정한 백동화였다. 일본은 백동화를 그 질에 따라 갑, 을, 병종으로 구분하여 갑종은 원래 백동화의 가격인 신전(新錢) 2전 5푼으로, 질이 떨어지는 을종은 신전 1전으로 교환해 주었다. 그리고 질이 더 떨어지는 병종은 악화(惡貨)라고 하여 교환해 주지 않았다.

< 보 기 >

- ㄱ. 전한국에서 화폐가 주조되었다.
- ㄴ. 은본위 화폐 제도가 시행되었다.
- ㄷ. 통화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
- ㄹ. 국내 상공업자들의 화폐 자산이 감소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화폐 정리 사업

러·일 전쟁 중 일제는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고 스티븐스를 외교 고문, 메가타를 재정 고문으로 앉혔다. 메가타는 재정 정리 사업과 화폐 정리 사업(1905~1909)을 추진하여 황실 재정을 해체하고 한국의 금융을 장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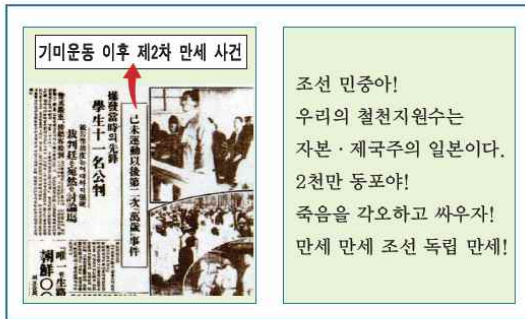
화폐 정리 사업은 우리나라의 상평통보나 백동화를 일본 제일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로 바꾸도록 한 것으로, 교환 기간을 3일밖에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질이 나쁜 백동화는 교환해 주지도 않았다. 그 결과 유통 화폐의 부족 현상으로 국내 상공업자들과 민간 은행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반면, 일본 상인들은 사전에 정보를 미리 알고 이에 대비하여 많은 이익을 챙겼다. 또한 화폐 정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 차관으로 조달하여 대한 제국은 거액의 국채를 떠안게 되었다.

㉠ 1883년 동도 개화 정권은 전한국을 설치하여 당오전, 은화, 백동화(1892)를 비롯한 무려 15종 이상의 화폐를 발행하였다.

㉡ 1892년 '신식화폐조례'를 반포하여 은화(銀貨)를 본위화로 하고 동화(銅貨)를 보조화로 채택하는 근대식 화폐제도를 마련하였고, 1차 갑오개혁(1894)에 의해서는 근대적 은본위 제도(銀本位制度)를 확립하였다.

* 1900년 광무 정권 때에는 칙령으로 금본위 화폐 제도를 마련하였다.

37.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신간회의 지원 속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② 순종의 인산일에 학생들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민족 자결주의와 2·8 독립 선언의 영향을 받았다.
- ⑤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정답: ②

* 6.10 만세 운동(1926)

* 제시된 자료는 '6·10 만세 운동 관련자 공판 속보(조선일보, 1926.11.3)이다.

• 사회주의자와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은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만세 운동을 계획하였다(1926).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한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다.

그러나 학생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순종의 국장일인 6월 10일, 학생들은 일제 경찰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장례 행렬을 따라가며 서울 시내 곳곳에서 만세 시위를 벌였고, 많은 시민들이 합세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전국 곳곳의 학생들도 동맹 휴학 투쟁을 벌여 호응하였다.

6·10 만세 운동은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되지는 못했지만, 일제 타도를 위한 구체적 실천 노선을 제시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당시 격문에는 '일체의 납세를 거부하라!', '일본인 공장의 직공은 총파업하라!', '일본인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지 마라!' 등 민중이 실천해야 할 경제투쟁의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운동의 준비 과정에서 조선 공산당 등 사회주의 세력과 천도교 등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함으로써 민족 유일당을 결성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6·10 만세 운동 이후 학생들은 독서회나 비밀 결사를 만들어 일제의 식민 지배 정책을 정면 비판하는 동맹 휴학 투쟁을 더욱 치열하게 전개해 나갔다.

① 신간회에서는 광주학생항일운동 시위를 전국적인 대중 운동으로 확산시킬 목적으로 대규모 민중 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일제가 신간회 간부들을 대거 검거함으로써 중단되었다(민중 대회 사건, 1929. 12.)

③, ④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회담인 파리강화회의에서 제기된 월슨의 민족자결론과, 동경 유학생들의 2.8 독립 선언은 3.1 운동에 영향을 주었고, 3·1 운동(1919)은 단일한 민족 운동의 지도부가 없으면 독립 달성이 요원하다는 교훈을 남겨, 임시 정부 수립운동으로 이어졌다.

⑤ 1929.11.3. 광주 지역의 한.일 학생들 간의 충돌된 광주학생일운동은, 각급 학교에 조직된 독서회 등을 통한 학생들의 항일 의식을 고양과 동맹 휴학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38. 다음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字番號), 사표(四標),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할 때, 조사 측량 지역 내의 2인 이상의 지주로 총대를 선정하고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 조선 총독부 관보 -

- ① 지주들을 산업 자본가로 전환시키려 하였다.
- ② 소작농의 관습적인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 ③ 토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 ④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⑤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를 총독부 소유로 편입시켰다.

정답: ①

* 토지조사사업(1912~1918)

1910년에 시작된 토지 조사 사업은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사업은 토지의 소유권, 토지 가격, 지형 및 용도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목적은 식민지 지배를 위한 재정 마련의 일환책으로, 즉 안정된 지세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총독부는 당사자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소유권을 인정하고, 대한 제국 정부 소유지와 황실 소유지, 미신고 토지 및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 등은 강제로 빼앗았다. 또,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소작 농민이 오랫동안 누려 왔던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었고, 기한부 계약에 따라 지주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소작인이 늘어났다. 총독부는 지세부와 대상을 크게 늘리고 토지 가격을 높이 책정하여 토지세를 더 많이 거두어들였다(지세령). 이렇게 거둔 토지세의 대부분은 식민 통치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① 1949년에 법이 제정되어 실시된 농지 개혁은 토지 재분배를 통해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층을 중심으로 농촌 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주의 토지 자본을 산업 자본으로 전환하여 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토지 대금으로 받은 지가 증권은 현금화가 어려워 중소 지주층이 산업 자본가로 전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39. 다음 역사 신문에 실린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역사신문

제○○호○○○○년 ○○월 ○○일

특집 : 항일 독립운동 단체를 찾아서

이 단체는 경상도 일대에서 박상진, 채기중 등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만주에도 지부를 두었다. 이들은 일제와의 군사 대결을 통하여 나라를 되찾는다는 계획 아래 군자금 모집과 무기를 구입하여 독립군을 양성하려 하였다. 이에 일제의 재산을 빼앗고, 부호들에게 의연금을 건었으며, 협조하지 않는 친일 부호를 처단하는 등 민족적 각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 ① 공화 정체의 국가 건설을 지향하였다.
- ② 조선 혁명 선언을 행동 지침으로 삼았다.
- ③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 ④ 국권 반환 요구서를 조선 총독부에 제출하였다.
- ⑤ 고종의 비밀 지령으로 의병들을 모아 조직하였다.

정답: ①

* 1910년대 비밀결사 단체 ‘대한 광복회’

대한 광복회는 1910년대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항일 단체로, 박상진, 채기중 등이 의병 계열과 애국 계몽 운동 계열의 비밀 결사들이 통합하여 결성하였다(1915).

양반과 상민이 함께 가입하여 활동했고 지도급 인사들 중에는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대한 광복회는 독립군을 길러 일제를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며, 임병찬의 독립 의군부(1912)와는 달리 복벽주의를 극복하고 공화 정체의 근대 국민 국가의 수립을 지향하였다.

이를 위해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있었으며, 국내는 물론 만주에도 지부를 설치하고 독립군 양성에 노력하였다. 독립 전쟁에 필요한 군자금 마련을 위해 일제의 재산을 빼앗고 부호들에게 의연금을 건었으며, 협조하지 않는 친일 부호를 처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일제 경찰에게 전국의 조직망이 발각되어 해체되고 말았다(1918). 이 때 박상진 등 주요 인물이 검거되고 사형당하였지만 체포를 피한 김좌진 등의 일부 조직원들은 만주로 망명하여 무장 독립 투쟁을 계속하였다.

② 김원봉이 주도하여 세운 의열단은, 폭력적 민중혁명에 의한 일제의 타도를 부르짖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1923)을 강령 삼아 활동하였다.

③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안무의 국민회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등과 함께 일본군 대대 병력을 섬멸한 항일무장투쟁 최초의 대승이다(1920.6)

④, ⑤ 최익현의 제자인 임병찬은 쓰시마 유배에서 풀려난 후 고종의 밀지를 받고 전국 곳곳의 의병장과 유생들을 모아 비밀 결사인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다(1912).

이 단체는 복벽주의 이념에 따라 국권을 회복한 후 고종을 복위시키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전국적인 의병을 일으키려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총리대신과 조선 총독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려고 계획하던 중에 조직이 발각되어 해체되었다(1914.5).

40. (가), (나) 독립군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3점]

◆ 1930년대 무장 독립 전쟁

- (가)
 - 지청천을 중심으로 활동
 - 대표적인 항일 전투
 - ↳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 (나)
 - 양세봉을 중심으로 활동
 - 대표적인 항일 전투
 - ↳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 ① 중·일 전쟁 발발 이후에 조직되었다.
-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 산하의 독립군이였다.
- ③ 연합 부대를 결성한 후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 ④ 국내 정진군을 조직하고 특수 훈련을 받았다.
- ⑤ 만주 지역에서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정답: ⑤

* 1930년대 초반의 항일 무장 투쟁

일제가 만주 사변(1931)을 일으키고, 이듬해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1932)하여 만주 일대를 장악하면서,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군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독립군은 일제의 만주 침략으로 항일 의식이 고조된 중국군과 연합하여 활동하였다.

서간도 지역에서 국민부를 모태로 1929년 설립된 조선 혁명군은 양세봉의 지휘 아래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그러나 조선 혁명군은 1934년 양세봉이 살해당하고, 간부들이 체포, 처형당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북만주에서 1931년 결성된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의 지휘 아래 중국군과 연합하여 토일군(구국군)을 조직하였다. 토일군은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이후 전리품 문제와 만주에서 사회주의화 되어가는 중국군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김구의 요청으로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임시 정부에 합류하였다.

① 중국 관내에서 김원봉이 주도하던 민족 혁명당은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 공산주의 정당과 연합하여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결성하고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1938).

②, ④ 1940년 9월 충칭으로 옮긴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한국 광복군은 1945년에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 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던 중 8·15광복을 맞아 작전이 무산되었다..

③ 간도 참변(1920.12) 이후 독립군은 일본군의 추격이 없는 안전지대에서 부대를 재정비하기 위해 소련·만주 국경 지대인 밀산부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1921년 4월 대한 독립 군단(총재 서일)을 결성한 후 소련령으로 이동하였다.

독립군은 헤이룽 강 연안의 자유시로 이동하였으나, 독립군 내부의 군 지휘권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소련군의 공격을 받아 이른바 자유시 참변을 당하였다(1921. 6)

41. 일제 강점기 (가), (나) 지역 국외 동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가) - 해조신문, 권업신문 등을 발간하였다.
- ② (가) - 신흥 강습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 ③ (나) - 서전 서숙, 명동 학교 등을 건립하였다.
- ④ (나) - 한인 자치 기구인 경학사를 결성하였다.
- ⑤ (가), (나) - 대한인 국민회를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답: ②

* 국외 동포들의 활동 지역

북간도: 19세기 후반 이후 우리 민족이 많이 이주하여 주민의 80%를 차지할 정도였고, 일찍부터 용정촌, 명동촌 등 많은 한인 집단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를 중심으로 애국지사들은 간민회 등 자치 단체를 만들어 동포 사회를 이끌어 가면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간민회는 민족 교육과 한인들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북간도 한인 사회의 형성과 단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 서전서숙(이상설), 명동 학교(김약연) 등 민족 학교를 세워 철저한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북간도로 거점을 옮긴 대중교에서도 중광단이란 무장 독립 단체를 만들고 사관 양성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중광단은 3·1 운동 이후 북로 군정서로 발전하였다.

남만주(서간도): 서간도 지역에서는 신민회 회원들이 독립군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회영, 이상룡 등이 중심이 되어 삼원보에 민족 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 강습소(후일 신흥 무관 학교)와 같은 군사 간부 양성소를 설치하였다(1911).

특히 신흥학교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어 백서 농장을 건설하고 독립군을 편성, 훈련하였다. 경학사는 뒤에 부민단, 한족회로 발전하면서 독립군(서로 군정서)을 조직하였다

밀산부: 러시아와 만주의 접경 도시인 밀산에는 이상설, 이승희 등에 의해 독립운동 기지인 한흥동이 건설되었다.

연해주: 이미 많은 동포들이 이주해 살고 있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1908년 최초의 해외신문인 해조신문이 발간되었고, 1910년 6월과 8월 유인석, 이범윤 등이 중심이 되어 13도 의군과 성명회(聲鳴會)가 설립되었으나 동년 9월 대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러시아의 압력으로 해체되었다.

그러나 1911년 독립운동 기지인 신한촌과 이를 기반으로 자치조직인 권업회(勸業會) 설립되어 독립운동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와 도서관을 설치하였으며, 기관지로 권업신문을 발간하였으나, 이 역시 대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러시아의 압력으로 해체되었다.

이상설과 이동휘 등은 1914년 대한 광복군 정부를 조직하여 군사 활동을 준비하였으나, 일제와의 관계 악화를 꺼린 러시아가 독립군의 무장 활동을 탄압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은 어려웠다. 이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연해주에서는 전로한족대표자회의(1917)가 설립되어 한인신보 등을 간행하며 독립운동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다,

3·1 운동 직후 임시 정부 형태의 대한 국민의회(1919.3)로 발전하였다. 한편, 이동휘 등에 의해 한인 사회당(1918)이 조직되어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 운동이 등장하게 되었다.

미주: 하와이 이민의 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대한인 국민회(1910)가 조직되어 안창호 등을 중심으로 동포 사회의 결속과 민족의식의 고취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한인 국민회도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한국의 실정을 세계에 알리고 독립을 호소할 것을 결의하였다.

42. 다음 두 주장의 영향으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산업 종사자, 종교인, 학생, 지식인 등 전 국민의 단합과 통일을 주장한다. 민족적 통합의 그 목적은 '조선의 해방'에 있다. 최근의 운동에서는 계급 운동의 참여자라 할지라도 연합 민족 운동을 강렬히 요구하고 있다.
-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하여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또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하여서도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분연히 싸워야 할 것이다.

- ① 민족 유일당 운동이 추진되어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 ② 민족주의자를 중심으로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되었다.
- ③ 한성, 상하이, 연해주 지역의 임시 정부가 통합되었다.
- ④ 일제와 타협적인 경향을 보이는 자치 운동이 대두되었다.
- ⑤ 학생과 종교계 대표들의 주도로 만세 운동이 시작되었다.

정답: ①

* 민족 유일당 운동과 신간회 설립(1927)

• 제시된 자료는 1926년에 있었던 '조선민흥회' 관련 신문기사와 '정우회 선언'이다

• 이광수는 1924년 1월 동아일보에 논설 '민족적 경륜'을 실었다. 자치론으로 불리는 그의 주장은 '조선의 독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인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자'는 것이었다(타협론).

이와 같은 자치론에 반대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와 연합하여 조선 민흥회를 만들었다. 한편 사회주의 단체인 정우회는 1926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민족협동 전선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이 조선 민흥회에 속한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져 1927년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② 물산 장려 운동과 민립 대학 설립 운동으로 대표되는 1920년대의 실력 양성 운동이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전개되었다.

③ 3·1 운동(1919)은 단일한 민족 운동의 지도부가 없으면 독립 달성이 요원하다는 교훈을 남겨, 한성, 상해, 연해주 등지에서 임시 정부 수립운동으로 이어졌다.

⑤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회담인 파리강화회의에서 제기된 월슨의 민족자결론과, 동경 유학생들의 2.8 독립 선언에 영향을 받아 국내의 종교지도자들과 학생들이 주도로 3.1 운동이 전개되었다(1919).

43. (가) 종교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점]

동학의 제2대 교주인 최시형이 순교한 뒤, 제3대 교주가 된 손병희는 교정 일치(敎政一致)를 강조하면서 조직의 재정비와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용구 등 동학 교도들의 일부가 점차 친일화되자, 손병희는 교정 분리(敎政分離)의 원칙을 내걸고 1905년 교명을 (가) (으)로 개칭하였다.

- ① 3·1 운동에 참여하고 잡지 개벽을 간행하였다.
- ② 간척 사업을 추진하고 새생활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③ 중광단을 조직하여 항일 독립 전쟁에 참여하였다.
- ④ 브나로드 운동을 통해 민중 계몽 사업을 추진하였다.
- ⑤ 친일 승려를 성토하고 사찰령 폐지 운동을 전개하였다.

동학 농민 운동의 실패 후 이용구 등 일부 동학 교도들이 친일 활동을 하자 손병희는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여 동학의 전통을 계승하였다(1905). 천도교는 만세보를 창간하였으며(1906), 보성학교와 동덕여학교를 경영하여 민족 교육에도 힘을 기울였다.

천도교는 1922년 3월 1일 제2의 3·1 운동을 계획하여 자주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개벽사를 설립하여 『개벽』(1920), 『부인』, 『어린이』, 『학생』 등의 잡지를 간행하며 문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방정환 등이 청소년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근대 문물을 이해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② 박종빈이 창시한 원불교(1916)는 개간 사업과 저축 운동을 전개하여 민족의 자립정신을 키웠으며 남녀평등을 내세웠다.

③ 나철이 창시한 대종교(1909)는 일제 강점 이후 항일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종단의 중앙 기구를 간도로 옮겼으며, 중광단 등 항일 무장 단체를 결성하였다. 중광단은 3·1 운동 이후 북로 군정서로 개편되어 적극적인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④ 동아일보는 1931년부터 ‘브나로드 운동’이란 이름을 내세워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했는데, 여름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을 모아 행사를 기획하고 교재를 공급하였다.

⑤ 일제는 불교를 통제할 목적으로 사찰 재산의 처분이나 주지 임명까지 허가를 받도록 한 사찰령(1911)을 제정했으며, 일본 불교를 침투시켜 우리 불교를 일본 불교에 통합하려 하였다. 이에 맞서 한용운 등은 항일 운동에 참여하면서 불교의 대중화에 노력했고, 일부 청년 승려들은 조선 불교 유신회를 조직하여 일본의 불교 통제에 맞서 싸웠다.

정답: ①

* 천도교

44.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1886년 경기도 양평에서 출생
- 1922년 안창호 등과 '국민대표대회 준비위원회' 조직
- 1933년 조선중앙일보사 사장에 취임
- 1944년 현우현 등과 '조선 건국 동맹' 조직
- 1947년 혜화동에서 피격으로 사망

< 보 기 >

- ㄱ.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ㄴ. 김규식과 함께 좌우 합작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ㄷ.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의열 투쟁을 전개하였다.
- ㄹ. 5·10 총선거에 불참하고 통일 독립 촉진회를 결성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여운형(1886~1947)에 대하여

중도적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인 몽양 여운형은 1918년 파리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의 독립을 청원할 대표를 파견하기 위해 신한 청년당을 조직하여 김규식을 파견했고, 이듬해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임시 의정원 의원이 되었다.

1920년 고려 공산당에 가입, 이듬해 모스크바에서 열린 원동 피압박 민족 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와 중국의 쑨원과 협력하여 중국혁명을 적극 추진하다 복역하기도 했으며, 중앙일보 사장으로 있다가 1936년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사직하기도 하였다.

1944년 일본의 패전을 예상하고 비밀 단체 조선 건국 연맹을 조직하여 위원장에 취임, 독립 운동을 전개했다. 이듬해 8월 15일 해방되자 건국 연맹의 기반을 확대하여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를 기초로 이 해 9월 조선 인민 공화국을 선포, 스스로 부주석이 되었으나 우익 진영의 반대를 받은 위에 미 점령군 당국의 인정을 받지 못해 실패했다. 12월 인민당을 조직, 이듬해 29개의 좌익 단체를 규합하여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 의장단의 한 사람에 선출되었으나 정책 노선이 명확하지 못해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고 반대파 좌익세력에게 밀려 탈퇴하였다. 또, 1947년 5월 근로인민당을 조직하였으나 극좌·극우 양측으로부터 소외당하였다.

한편 중도 우파인 김규식과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1947.7)하고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던 중 극우파 한지근에 의하여 1947년 7월 암살되었다.

㉠ 1920년대 후반 이후 침체기에 빠진 임시정부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김구는 1931년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여 적극적인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 김구와 남북협상파 일행은 5월 10일 총선에 참여하지 않고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하는 세력을 모아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목표로 통일독립촉진회를 결성했다.

45. 다음 대화와 관련된 개헌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 ② 통일 주체 국민 회의 설치
- ③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규정
- ④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 규정
- ⑤ 국회 간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

1950년 5월, 제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이 선거로 남북 협상을 통한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중도 세력(무소속)이 국회에 많이 진출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국회 간접 선거로는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였다.

6·25 전쟁 중에,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직선제 개헌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하였다(1952. 1.). 그리고 민주 국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들은 내각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전시 수도인 부산 일대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내각제를 찬성하는 의원들을 헌병대로 연행하였다. 또 10여 명의 국회의원을 국제 공산당원으로 몰아 구속했다.

이러한 와중에서 자유당은 대통령 직선제에다 내각 책임제를 약간 가미한 개헌안(양원제: 참의원.민의원)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켰다(1952. 7.).

① 이승만 정권은 1954년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에서 초대 대통령에 한한 중임 제한을 폐지하였다

② 박정희 정권은 7차 개헌(유신 헌법, 1972)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꾸었다.

④ 1980년 8차 개헌에서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 규정을 통하여 전두환이 선출되었다.

⑤ 1948년 제헌 헌법에서는 국회의 간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규정하고 이승만을 선출하였다.

정답: ③

* 발췌 개헌(1952: 1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46. 다음 인터뷰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 ② 부정 선거의 원흉과 발포 책임자, 부정 축재자를 처벌하겠습니다.
- ③ 민족 정기를 바로 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④ 남북 사이의 평화 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햇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⑤ 야간 통행 금지의 해제, 해외 여행 자유화 등 개방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정답: ②

* 장면 정권(1960.8~1961.5)

4.19 시민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후 구성된 허정 과도 정부는 부정 선거를 계획한 정부 각료와 자유당 간부를 구속하였다. 국회는 6월 15일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7월 29일, 민의원과 참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민주당 후보가 대부분 당선되었다. 이후 구성된 국회에서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장면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여 장면 내각이 성립되었다.

장면 내각은 출범 직후 시정 방침을 발표하고 개혁에 나섰다. 그러나 다양한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으며, 약속했던 부정 선거 책임자와 부정 축재자 처

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한편, 이승만의 반공 정책으로 억압되었던 평화 통일 운동이 분출하였다. 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남 전기, 이북 쌀’과 같은 구호를 내세우며 남북 학생 회담을 주장하였다. 혁신계 정당과 단체들도 남북 정당과 사회 단체의 정치 협상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유엔이 제안한 남북 총선거를 통한 평화 통일론을 수용하면서도,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에는 반대하였다.

장면 내각은 공무원 공개 채용 제도와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조치 등을 단행하였고, 군비 축소를 통한 경제 개발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집권당인 민주당은 대통령(구파)과 총리(신파)를 중심으로 분열·대립하였다.

①, ④ 김대중 정부(1998~2003)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위원회를 만들고 기업 구조 조정, 외국 자본의 유치, 부실기업의 정리 등에 힘써 2001년에는 국제 통화 기금의 관리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평화 정착과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해 햇볕 정책을 적극 펼쳤다. 그 결과 2000년 평양에서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고 ‘6·15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③ 제헌 국회에서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한 ‘반민족 행위 처벌 특별법’을 제정(1948. 9)하고 반민특위가 설치되었으나 이승만 정권의 소극적 대처와 친일 경찰의 공격으로 시효가 단축되어 단죄에 실패하였다.

⑤ 전두환 정부(1981~1988)는 언론 통제, 정치 활동 규제 등 민주화를 억압하면서 해외 여행 자유화, 야간 통행금지 해제 등의 국민 유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47. 다음 경제 개발 계획이 추진된 결과로 옳은 것은? [2점]

제3차 경제 개발 계획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기본 목표를 성장, 안정, 균형의 조화에 두고 안정된
기반에서 성장을 이룩하고 동시에 개발 성과가 농어민
과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온 국민에게 널리 파급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
둘째,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국제 수지의 개선 및 주곡의 자
급을 실현함으로써 자립적 경제 구조를 이룩한다.

- ① 무역 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하였다.
- ② 시장과 자본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었다.
- ③ 원조 물자를 기반으로 삼백 산업이 발전하였다.
- ④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변화되었다.
- ⑤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어 각종 규제가 완화되었다.

정답: ④

* 3차 경제 개발 정책(1972~1977)

1970년 무렵에는 값아야 할 차관의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고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차츰 벽에 부딪히면서, 그 동안 이룩해 온 경제 성장은 위기를 맞아 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 제공, 중화학 공업화 정책의 추진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에 따라 마산, 이리(익산)에 수출 자유 지역이 만들어져 많은 외국인 기업이 들어섰다. 또, 울산, 포항, 창원, 여천(여수), 구미 등에 새로운 공업 단지를 조성하여 철강, 조선, 기계, 전자, 비철금속, 석유 화학 등 중화학 공업 등이 크게 발전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중반부터 중화학 공업 제품의 비중은 전체 제조업 분야와 수출 상품 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① 전두환 정권기인 1980년대 중반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을 맞아 1986년 대한민국은 대외교역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② 1990년대 들어서 김영삼 정권기에 우루과이 라운드(1994)가 출범하고 세계 무역 기구(WTO, 1995)가 설치되며 시장과 자본이 전면 개방되기 시작하였다.

③ 이승만 정권기 6.25 전쟁 직후 미국의 경제 원조는 1950년대 한국의 산업 구조를 바꿔놓았다. 제조업에서는 제분, 제당, 면방직의 이른바 3백 산업을 비롯한 소비재 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⑤ 김대중 정부(1998~2003)는 재벌, 금융, 공공, 노동의 4대 부문 개혁을 앞세워 각종 정부 규제를 완화시키며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펼쳤다.

48. 다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 옳은 것은?

[3점]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너도 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군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또한 협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면 우리는 즉각 총을 놓겠습니다.

- ① 신군부 세력이 비상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 ②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되었다.
- ③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 처리되었다.
- ④ 직선제 요구를 거부하는 4·13 호헌 조치가 발표되었다.
- ⑤ 대학생 박종철이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답: ①

* 5.18 광주 민주화 운동(1980)

1979년 10.26 사태(박정희 대통령 피살)로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국민들은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등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군대의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1980년 5월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신군부 세력은 5월 17일 비상계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치 활동을 모두 금지시켰다.

5월 18일 광주에서 비상계엄 해제와 신군부 세력 퇴진, 김대중 석방, 민주주의 실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하였다. 신군부는 공수 부대 등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이에 격분한 학생과 시민들이 시민군을 결성하여 시가전을 벌였다. 5·18 민주화 운동은 비록 좌절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②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하여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마침내 국민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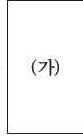
③ 제 2차 석유파동(1978~1980) 경제 침체 속에서 발생한 YH 무역 여공 농성 사건(1979)을 계기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정치 공세를 강화하자 여당은 그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였다. 이에 김영삼의 정치적 본거지인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합세한 부·마 민주 항쟁(1979. 10.)이 일어났다. 그러던 중에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피살됨으로써 유신 체제는 종말을 고하였다(10.26 사태).

④, ⑤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과 4·13 호헌 조치를 계기로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49. (가) 시기에 들어갈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제10회 서울 아시아 경기 대회 개최



제24회 서울 올림픽 경기 대회 개최

- ① 6·3 시위 ② 4·19 혁명
- ③ 부·마 항쟁 ④ 6월 민주 항쟁
- ⑤ 6·15 남북 공동 선언

정답: ④

*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사이의 역사적 사실

①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 실현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1964. 6. 3. 시위)를 억누르고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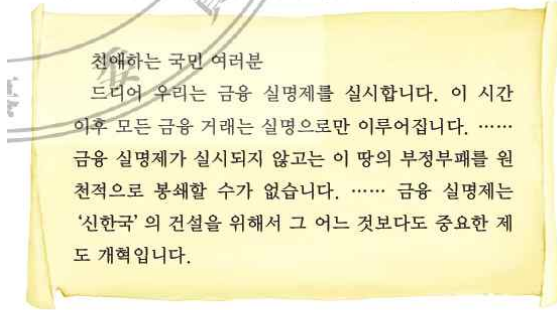
②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 선거는 4·19 혁명을 야기하였다(1960).

③ YH 무역 여공 농성 사건(1979)을 계기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정치 공세를 강화하자 여당은 그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였다. 이에 김영삼의 정치적 본거지인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합세한 부·마 민주 항쟁(1979. 10.)이 일어났다.

④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과 4·13 호헌 조치를 계기로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⑤ 김대중 정권의 평화 정착과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해 햇볕 정책을 적극 펼쳤다. 그 결과 2000년 평양에서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고 '6·15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50. 다음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연결 등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였다.
- ② 유상 매수, 유상 분배의 방식으로 농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 ③ 북방 외교를 추진하여 동유럽 공산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 ④ 공직자 윤리법을 제정하고,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 ⑤ 행정 수도 이전, 혁신 도시 건설 등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발표하였다.

정답: ④

* 김영삼 정권(1993~1998)의 정책

노태우의 민정당은 여소 야대 국회로 인한 정국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목적으로 김영삼, 김종필이 이끄는 두 야당과 합당하여 민주 자유당을 창당하였다(1990). 이에 14대 대통령 선거(1992.12)에서 여당의 김영삼 후보가 야당의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5·16 군사 정변 이후 31년 만에 들어선 민간 정부임을 강조하며 개혁을 단행하였다.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 공직자 윤리법을 제정하여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고,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다. 신군부의 뿌리인 하나회를 해체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였으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반란 및 내란죄로 수감하였다.

한편, 성급하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시장 개방 정책을 실시했으나, 임기 말에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IMF)에 의존하게 되었다(1997).

① 김대중 정부 때에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마침내 평양에서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고(2000). 금강산 관광과 경의선 연결,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이 실현되었다.

② 이승만 정권 때에 농지개혁법이 제정(1949)되어 실시되었다.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이루어진 농지 개혁으로 인해 소작 제도가 폐지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는 원칙이 수립되었다.

③ 노태우 정부(1988~1993)는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 및 소련,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북방 정책을 추진하였고, 유엔에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④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후 31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0년 3월 22일에 이루어졌다

⑤ 노무현 정부는 정경 유착의 단절, 권위주의의 청산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과거사 진상 규명(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등에 노력하였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을 발표하였다.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여 2007년 남북 정상 회담을 가졌다.